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of Baby boomers and Echo-boomers who Live Alone

So-Yun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독거 중고령자와 청년의 고독사나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큰 독거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에 해당되는 독거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두 집단 간 비교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2020한국복지패널 1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1955-1963년생인 독거 베이비부머와 1979-1992년생인 독거 에코부머의 자료로 독립표본 t-검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독거 베이비부머는 에코부머 세대에 비해 교육, 소득, 건강 상태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수준은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그 영향은 베이비부머(Adjusted R² .259)가 에코부머(Adjusted R² .083)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거 중고령자와 청장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우울, 자아존중감, 베이비부머, 에코부머, 1인가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depression of baby boomer and eco-boomer generation (the children of baby boomers) living alone. It was identif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the 15th data of the 2020 Korea Welfare Panel, an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e data of baby boomers who live alone (born in 1955-1963) and eco-boomers who live alone (born in 1979-199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baby boomers who live alone had lower levels of education, income, and health condition than the eco-boomers who live alone, and had higher level of depression, but relatively lower level of self-esteem. In both groups, self-esteem had an effect on depression,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was greater in the group of baby boomers (Adjusted R² .259) than in eco-boomers (Adjusted R² .083).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prevent the depression among middle-aged, elderly people, and young adults who live alone.

Key Words : Depression, Self-esteem, Baby boomers, Eco-boomers, Single-person households

1. 서론

베이비부머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노인기에 진입하여 이후 한국의 고령화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로 현재 71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에코세대는 1979년-1992년에 출생한 세대로 954만 명으로 추계되어 전체 인구의 19.9%

*Corresponding Author : So-Yun Choi(sychoi@nsu.ac.kr)

Received July 29,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6,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를 합치면 한국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수준이다[1].

이러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도 두 세대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독거 중고령자와 독거 청년층이 경제, 사회, 심리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독거 베이비부머의 경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인기를 맞이하여, 빈곤에 처하거나 사회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비독거중고령자에 비해서 고독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뿐만 아니라 에코부머 세대는 지속되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고 독거 중고령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슈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업의 장기화로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사회적 연계망의 사각지대에서 우울, 자살위험과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4,5].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는 인간발달 주기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성장해 온 사회경제인 상황이 다르지만, 독거가구라는 공통된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고립, 가족관계의 단절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비독거 중고령자나 청년층에 비해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독거 중고령자의 우울은 심각한 경우는 자살생각 등 부정적인 정서나 정신건강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완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다[6-8].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인가구 중고령자와 청년세대의 고독사와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큰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두 집단의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삶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한국복지패널 15차 데이터 중 1인가구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자료를 추출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비교하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두 집단의 비교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 확장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1인가구의 특성

우리나라 1인가구는 2019년 614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9]. 1인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일상생활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외로움, 간병 등 공통적인 문제가 있지만, 연령대별 다소 차이가 있다. 20, 30대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혼자 처리하는 어려움, 심리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우선으로 호소하며 40, 50대는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심리적 외로움을 우선으로 호소하고 있다. 60대 이상은 남성의 경우 가사와 심리적 외로움, 여성의 경우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어서 연령대별로 지원 방향의 초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0].

1인가구는 정서적, 사회적인 지지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로, 2018년 1인가구 성인의 자살생각 비율은 9.0%로 2인 이상 가구(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11].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경우 비독거노인에 비해 정신건강과 영양관리 수준은 열악하며 혈연의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삶의 만족이 낮고 자살생각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를 긍정적, 부정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표상을 의미한다[13]. 자아존중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유용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존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4].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 적응, 안녕 등의 긍정적인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 스트레스, 소진 등 부정적인 정서를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6].

2.3 우울

우울은 기분, 생각,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17]. 일반적인 우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울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는 정신장애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은 837,808명이며, 이 중 30대-60대는 496,856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다[18]. 우울감이 심한 경우 우울장애로 연결될 뿐 아니라 자살생각이나 의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울감을 완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는 스트레스 완충을 위한 인적 및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연계망이 취약하여서 우울감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2.4 자아존중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변수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자아존중감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점이다[20,21].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그 설명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3.2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5차 데이터 6,026가구 중, 1955년-1963년의 독거 베이비부머 211가구와 1979년-1992년의 독거 에코부머 136가구, 총 347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3 측정도구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22],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CES-D)을 활용하였다[23]. 우울은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4점 척도로, 응답자의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측정되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Version 23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평균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부머세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평균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347명 중 독거 베이비부머는 211명, 독거 에코부머는 136명으로 남자는 159명(베이비부머 82명, 에코부머 77명), 여자는 188명(베이비부머 129명, 에코부머 59명)이었다. 이들의 교육, 건강, 경제, 주거상황은 Table 1, 2와 같다.

Table 1. Baby boomer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n=211	Male	82(38.9%)
	Female	129(61.1%)
Marital Status n=211	Mate	2(9%)
	Separation	69(32.7%)
	Divorce	92(43.6%)
	Separation by death	14(6.6%)
Educational Status n=211	Unmarried	34(16.1%)
	Illiteracy	4(1.9%)
	Primary school	75(35.5%)
	Middle school	55(26.1%)
	High school	63(29.9%)
	College	5(2.4%)
	University	6(2.8%)
Master	2(0.9%)	
	Doctor	1(0.5%)
Heath Condition n=211	Very good	4(1.9%)
	Good	73(34.6%)
	Average	66(31.3%)
	Bad	63(29.9%)
	Very bad	5(2.4%)
Housing Type n=211	Individual home	52(24.6%)
	Multiple dwellings	44(20.9%)
	Multiplex Housing	25(11.8%)
	Row house	5(2.4%)
	Apartment	32(15.2%)
	Public Housing	27(12.8%)
	Dwelling with shop	6(2.8%)
	Flats with shops	2(0.9%)
	Officetel	2(0.9%)
	National rental	16(7.6%)
Birth Year mean (age)	1958.22 (62.8)	SD (2.48)
Income (per year)	Mean(19,862,500)	SD (1,327.8)
	Min:-440,000	
	Max:80,020,000	

독거 베이비부머의 혼인상태는 이혼, 사별, 미혼, 별거의 순서였는데, 독거 에코부머는 미혼(91.2%), 유배우, 이혼의 순서였다. 베이비부머의 76.3%가 이혼과 사별로 독거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에코부머의 경우는 대부분이 미혼 상태였다.

Table 2. Echo-boomer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n=136	Male	77(56.6%)
	Female	59(43.4%)
Marital Status n=136	Mate	10(7.4%)
	Divorce	2(1.5%)
	Unmarried	124(91.2%)
Educational Status n=136	High school	14(10.3%)
	College	35(25.7%)
	University	67(49.3%)
	Master	16(11.8%)
	Doctor	4(2.9%)
Health Condition n=136	Very good	35(25.7%)
	Good	82(60.3%)
	Average	13(9.6%)
	Bad	6(4.4%)
	Very bad	0(0%)
Housing Type n=136	Individual home	4(2.9%)
	Multiple dwellings	48(35.3%)
	Multiplex Housing	11(8.1%)
	Row house	2(1.5%)
	Apartment	37(27.2%)
	Public Housing	3(2.2%)
	Dwelling with shop	1(0.7%)
	Flats with shops	1(0.7%)
	Officetel	26(19.1%)
	National rental	3(2.2%)
Birth Year mean (age)	1986.79(34.2)	SD(3.95)
Income (per year)	Mean(38,882,900) Min:5,830,000 Max:151,630,000	SD (2,045.55)

교육수준은 에코부머가 베이비부머세대에 비해 높았다. 독거 베이비부머는 초등학교 졸업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29.9%, 중학교 졸업이 26.1%의 순이었고, 전문대졸과 대졸이 5.2%, 무학도 1.9%였다. 에코부머세대의 교육수준은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졸(49.3%), 전문대졸, 대학원 석사 순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주거유형은 독거 베이비부머는 일반주택(24.6%), 다가구주택(20.9%), 일반아파트(15.2%)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에코부머는 다가구주택(35.3%), 일반아파트(27.2%), 오피스텔(19.1%)의 순서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반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에코부머는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이 높았다. 소득면에서 에코부머

의 연평균 경상소득이 베이비부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연평균 1,986만 원이었으나 에코부머는 연평균 3,888만 원으로 1,900만 원 정도 많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는 30% 이상이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에코부머 세대는 4.4%만이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 독거 베이비부머가 인식하고 있는 건강 상태는 에코부머에 비해 현격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평균차이 검증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통해 제시된 t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Depression and Self-esteem Means Difference between Baby boomers and Eco-boomers who Live alone

	Baby Boomer	Echo-boomer	t
	M(SD)	M(SD)	
Depression	72.73 (6.41)	62.45 (4.27)	5.596***
Self-esteem	2.89 (.439)	3.34 (.368)	-10.229***

***p<.001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은 독거 에코부머의 우울감에 비해 높았으며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독거 에코부머가 독거 베이비부머에 비해 높았으며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4.3 자아존중감이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형1은 성별과 건강상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모형2는 모형1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1에 자아존중감을 추가한 것이다. 다중공선성은 공차와 분산팽창지수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공차는 .707~.986, VIF(분산팽창지수)는 1.01~1.34 였고 에코부머의 공차는 .942~.992, VIF는 1.01~1.0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거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1에서 성별은 독거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1의 영향력은 Adjusted R²가 .07로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을 추가한 모형2에서는 성별과 건강상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2의 설명력은 Adjusted R²가 .259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2의 R²변화량(모형2 R²-모형1 R²)은 .190였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독거 에코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Table 5 독거 베이비부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1에서 성별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1의 Adjusted R²는 .047로 독거 베이비부머의 통계치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2에서는 성별과 건강상태는 통계적인 유의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은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Adjusted R²가 .083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 세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of Baby boomers who Live Alone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Female=0)	.004	.058	-.198	-1.606
Heath Condition	.281	4.21***	.059	.889
Self-esteem			-.500	-7.327***
Constant	46.03		72.27	
R ²	.079		.269	
Adjusted R ²	.070		.259	
F	8.865		25.31	
F Sig.	.00		.00	

***p<.001

Table 5.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of Echo-boomers who Live Alone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Female=0)	-.142	-1.687	-.125	-1.51
Heath Condition	.191	2.264*	.144	1.70
Self-esteem			-.211	-2.39*
Constant	47.24		55.89	
R ²	.062		.104	
Adjusted R ²	.047		.083	
F	4.36		5.08	
F Sig.	.015		.002	

*p<.05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한국복지패널15차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두 집단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가 이혼과 사별로 독거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청년 세대인 에코부머는 미혼으로 독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두 세대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에코부머가 베이비부머세대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았다. 이는 한국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소득은 베이비부머의 경상소득이 에코세대에 비해 낮았는데, 에코부머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것에 비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전후의 연령대가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인식도 에코부머에 비해 좋지 않았는데, 50대와 60대의 중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이 에코부머의 우울감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직업과 사회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서인균과 이연실(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청년의 자아존중감을 노인과 비교한 정인희(2012)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24,25], 독거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역할상실이 에코부머에 비해 크고 지지체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독거 베이비부

며와 에코부머 모두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독거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Adjusted R^2 .259) 독거 에코부머세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Adjusted R^2 .083)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코부머세대는 직업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우울을 완충할 수 있는 반면, 독거베이비부머는 생애주기 상, 침체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에코세대보다 낮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2,3].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 베이비부머 세대나 에코부머 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확충을 위한 서비스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고용지원정책이나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이외에 독거 청년층과 중고령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독거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사회적 연대감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독거 베이비부머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우울감은 높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에코부머에 비해 큰 것에 주목하여 독거 중고령자의 자아존중감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법적인 노인을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와 같은 연소노인 세대가 이용하기에는 심리적인 제약이 있다. 따라서 연소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거 베이비부머가 능동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령층에 적합한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에코부머와 베이비부머의 여러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각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근거기반실천에 입각하여 설계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계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의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향후 세대 간 우울의 영향 및 결과요인을 비교관점에서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S. Park. (2016). *Baby boomers+Eco Generation, Accounting for a 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Korean Christian Gazette(Online).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7011876259>
- [2] C. K. Kim. (2021).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Elderly Living Alon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941-956.
- [3] S. J. Shin. (2019). The Effect of the Elderly Households' Self-esteem on their Depression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621-632. DOI : 10.35873/ajmahs.2019.9.6.060
- [4] H. R. Koo & S. J. Koo. (2019). Depressed Youth and Anxious Middle-aged: A Network Approach to Mind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3(1), 252-290.
- [5] J. M. Son. (2017). Job Stress Trajectories of the Eco-boomer Generation in the Convergence Era and Predicting Fact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05-409. DOI : 10.14400/JDC.2017.15.2.405
- [6] Y. D. Song, J. A. Son & S. M. Park. (2010). An Analysis of Eco-systematic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2), 644-660.
- [7] H. R. Kim & E. H. Kim, (2014).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its Risk Factors between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Living with Oth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1), 463-477.
- [8] J. H. Park & J. H. Jung. (201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 Medi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7, 309-330.
- [9]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0).

- Single-person Households by Gender and Type of Residence. KOSIS (Online). <https://kosis.kr/easyViewStat/s/>
- [10] K. H. Jung, S. H. Nam, E. J. Jung, J. H. Lee, Y. K. Lee, J. S. Kim, H. Y. Kim & M. J. Jin. (2012). *Policy Implications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ocused on the Increas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1] S. H. Lee & Y. J. Won. (2021). *Delivery Man Found a Month After His Death*. NWES1(Online). <https://news.v.daum.net/v/20210729055403719>
- [12] E. N. Kang & M. H. Lee. (2018). Identifying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Life in Later Adulthoo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196-226.
DOI : 10.15709/hswr.2018.38.4.196
- [13] Community Chest of Korea Sharing Research Center. (2018). *Scale Book for Performance Measurement*, Seoul: Korea Community Chest.
- [14] O. C. Choi, M. E. Park, M. K. Seo & S. K. Jin. (2012).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Paju: Yangseowon
- [15] Y. J. Oh, & S. M. Lee. (2017). The Mediator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3(3), 103-123.
DOI : 10.35154/kjvi.2017.33.3.103
- [16] M. O. Song & E. J. Sh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Calling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to Burnout Among Pasto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9(2), 163-190.
DOI : 10.23909/KJCC.2018.05.29.2.163
- [17] Asan Medical Center. (2021). *Depression*. Symptom Encyclopedia (Online).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16XXXXXS0590>
- [18] Healthcare Bigdata Hub.(2021). *Disease statistics of national interest*. Hwalth Care Big Data Hub (Online).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lnsInfo.do>
- [19] J. Y. Song. (2015).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2), 164-192
- [20] D. B. Kim & E. S. Son. (2005). A Meta-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4), 167-187.
- [21] C. G. Kim. (2021).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Crisisonomy*, 17(2), 135-144.
- [22]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23] 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 J. Cornoni-Huntley.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 [24] I. K. Seo & Y. S. Lee.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on Elderly Self-esteem : A Comparative Study on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Family. *KJLGAS*, 28(1), 371-399.
DOI : 10.18398/kjlgas.2014.28.2.371
- [25] I. H. Jung. (2012). A Study on Self-esteem and Influencing Factors of Adults by Life Cycle: Comparison of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Crisisonomy*, 8(6), 235-250.

최 소 연(So-Yun Choi)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사회복지학 전공)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례관리, 슈퍼비전,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E-Mail : sychoi@nsu.sc.kr